

북미주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2007년 9월 제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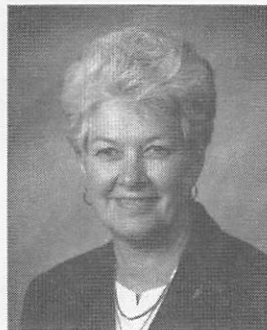
Ewha 2007, Women for the World

November 8 - 11, 2007 New York

Ewha 2007 Special Guests and Speakers



이 배 용 총장



Bishop Rador
국제재단 이사장



전 신 애
미 노동부차관보



김 숙 자 명예교수

Ewha 2007

모교에서 오시는 이배용 총장님을 비롯하여 김순영 동창 회장님과 임원 및 북미주와 유럽동창들을 모시고 "Ewha 2007, Women for the World"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뉴욕동창회에서는 즐겁고 유익한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화 국제 재단 이사회도 동시에 개최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동문 간의 정을 나누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이화인으로서의 긍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대 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제 6차 총회 및 이사회
- ▶ 이화 국제재단 제 38회 이사회
- ▶ 총장님 오찬 및 강연
- ▶ 전신애 노동부 차관보 강연
- ▶ 이원영 'Flower Arrangement & Ribbon Design' 강좌
- ▶ Broadway Show 관람
- ▶ 뉴욕 시내 관광
- ▶ 이화 연례만찬 및 특별순서
- ▶ 김숙자 교수 '마미모미 다함께'
- ▶ 주일아침 예배
- ▶ 총장님과 대화의 시간

Ewha 2008 북미주지회연합회 제 7차 총회와 국제재단 39회 이사회는 2008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주 Seattle에서 개최됩니다. 총회의 장래 개최 장소는 다음과 같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 2008년 (제 7차) - Seattle, Washington
- 2009년 (제 8차) - Denver, Colorado
- 2010년 (제 9차) - Honolulu, Hawaii
- 2011년 (제 10차) - Boston, Massachusetts

사랑하는 북미주지역 이화동창 여러분,

지난해 11월 토론토에서 동문님들을 만난 후 1년 만에 뉴욕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지금부터 가슴이 벅차옵니다. 지난 4월 LA에서의 이화 국제재단 워크숍 때도 느꼈지만, 이화에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시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동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장 이 배 웅

여러 동문님들의 커다란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지난 몇 달 동안 이화에는 많은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문 분야를 주도하고자 하는 이화의 새 비전 '이니셔티브 이화 (Initiative Ewha)'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화가 창립한 지 121년이 되는 해로, 설립 초기부터 국제화였던 이화가 세계화 시대에서의 더욱 더 크나큰 역할을 인식하고 세계적 초일류대학으로 비상하는 원대한 꿈을 가꾸어가려 합니다.

우선 올해 2월 국제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교류처를 신설하였으며,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아너스 프로그램(Honors Program)을 도입한 스크랜튼 학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국제학부와 결합하여 스크랜튼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이화가 세계 학문 연구의 정점이 되고 통섭과 융합을 통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이화학술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인재 육성과 첨단과학의 미래를 열기 위해 파주 교육·연구 복합단지 조성 및 해외거점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북경대학, 뉴욕에는 스토니 브룩 뉴욕주립대를 거점캠퍼스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7일은 북경대학에서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이화여대의 날'을 지정하고, 학술·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이화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화는 또한 서울대 및 산업기술연구회와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2007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본교가 신규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창립 121주년을 맞아 '이화 가족의 밤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화의 저력과 결집력을 널리 알리고 이화인들의 대화합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감동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3주간의 첫 발을 내디딘 이화가 힘차게 웅비할 수 있도록 모든 동문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이화 동문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11월에 뉴욕에서 열릴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북미주이화동창” 발간을 축하하며

존경하는 이화 북미주 동창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15대
총동창회장 김순영입니다.



총동창회장
김 순 영

"북미주이화동창"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 소식지가 미국, 캐나다 등지
에 흩어져 있는 동창들의 우정을 돈독히 하
며 모교의 소식, 총동창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타국생활에의 어려움을 이기고 조국에
의 향수를 달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121년의 세월 속에 우리들의 모교 이화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이를 선도했던 결단과 도전의 역사입니다. 또한 양적으로 성장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되고 훌륭한 가치들을 이 땅에 열매 맺게 한 위대한 역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교의 역사를 공유한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또한 이를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모교는 이니셔티브 이화의 기치아래, 세계의 이화로, 세계 100대 명문대로 향하는 글로벌 이화201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모든 동창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긴 역사와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신앙의 바탕위에 여성교육기관으로서 당당히 세계의 이화로 향해가는 우리의 모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금지와 자랑을 갖게 됩니다.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자부심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동창을 이어주는 가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주지회 소식지가 이화와 이화인의 소식을 더 넓게, 더 많이, 더 빨리 동창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창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발간되는 소식지는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의 소식지가 많은 동창들의 결집력의 역할을 하며, 화합의 중심점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모교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성남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화북미주지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화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5차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토론토)를 다녀와서

신임 이 배용 총장님을 비롯한 본국의 동창회 임원들과 미전역에서 모인 이화인들의 축제의 장, "Embracing the World", 제 5 차 북미주 총회 지회연합회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첫째날, 9일 저녁 9시부터 지회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둘째날, 10일 오전, 나이가가라를 포함한 토론토 관광이 이루어졌고, 국제재단 회의에 이어 저녁에는 총장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배용 총장님은 이화 120년을 뒤돌아 보며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화 대학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라는 시대 사적 인식아래, 앞장서서 주도하는 새 이화, 즉 Initiative Ewha 로 거듭나야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이를 위해 파주시에 교육, 연구 복합단지를 건립한다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교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동창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애창곡 "향수"를 다정하고 정갈한 모습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어서 각 지회에서 여러가지로 준비한 탤런트쇼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셋째날, 11일 이른 아침부터 에어로빅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지회연합회 회의에서 각 지회 회장이 1년동안의 활동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심장외과의인 문병주 박사의 '심장질환의 예방과 위험인자', 본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 동렬 박사의 '행복, 너는 어디에 꽃처럼 숨어 있느냐?', 토론토 대학 정신과 임성희 박사의 '인생 후반부 -

건강하고 멋있게' 등 3건의 세미나가 뜨거운 호응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아주 즐거운 방식으로 '행복론'을 펼쳐주신 이 동렬 박사의 강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종 일관 웃음의 도가니를 만들었던 이 박사는 강연 후, 자신이 쓴 수필집 '꽃피고 세월가면'을 한권씩 선물하기도 하셨는데, '인생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작업의 연속이다. 행복은 결국 그 날 그 날의 작은 것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내가 걸어다니는 길 모퉁이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녁6시 30분부터는 연례만찬이 펼쳐졌습니다. 이 배용 총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는 연설과 1993년에 최연소 교수로 발탁돼 지금까지 본교 음대교수로 재직 중인 배 일환교수의 첼로 연주, 토론토 동문들이 준비한 전통혼례식 재현의 무대가 펼쳐진 멋진 밤이었습니다.

마지막날, 12일 아침에 예배겸 총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사람의 삶의 역사가 단단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만큼의 품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말씀의 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균형과 조화를 갖춘 Leadership을 강조하셨으며, 우리 모두 주전자가 되어 한다고 말씀하셔서 웃음꽃을 피웠는데, 주 - 주체성, 전 - 전문성, 자 - 자신감을 갖춘 이가 이화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풀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선희 현 지회연합회 회장과 최 성남 내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6 북미주 총회 지회연합회 모임은 막을 내렸습니다.

모교사랑과 동문의 정을 나누는 만남의 장을 기대하며

여섯번째의 북미주지회 연합회 축제를 준비하며 <북미주 이화동창>회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총회 행사가 회를 거듭함에 따라, 동창간의 결속과 모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 해지고 있음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최 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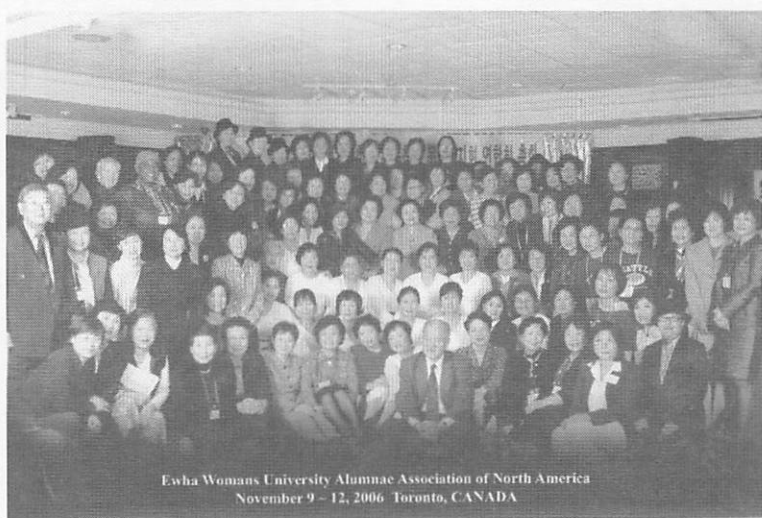
이제 자신의 성취는 물론 글로벌 리더로서의 세계에 기여하는 이화인임을 자부하면서 "Ewha 2007 - Women for the World"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울타리에서 공부했던 소중한 인연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화라는 이름으로 모여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있는 것은 이화대학을 졸업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2007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제 6차 총회에 참석하셔서 모교에서 오시는 총장님, 동창회장님과 임원, 국제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과 북미주, 유럽에서 오시는 동창들과 함께 만남의 향연을 즐기시고 동문의 정을 나누며 우리의 모교에 대해 다시 한번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뜻 깊고 보람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 재단을 통한 모교지원 기금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은 지난 2006년 회계연도에 총 \$458,105을 이화대학에 지원하였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29,470은 장학금으로 전달되어 총 60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국제재단에는 각 개인이 설립한 90여개의 장학 기금 이외에도 총 27개에 달하는 각 지회 별 장학기금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지회(2007년 상반기 수혜자 4명), 남가주지회(2명), 워싱턴디씨지회(7명), 뉴욕지회(4명) 등의 장학기금은 원금이 일정 목표액에 달하여 그 이자 소득만으로 매년 모교에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다.



Ewha Women's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November 9 - 12, 2006 Toronto, CANADA

내가 뉴욕을 사랑하는 이유

7월 4-11일 주간 'NEW YORK' 매거진의 표지가 눈길을 끈다. 여름 특집호라 그런가?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인이 햇바닥을 내민 채 웃고 있다. 그런데, 그 렌즈 속엔 뉴욕의 온갖 마천루가 다 들어 있다. 뉴욕은 매력적이다. 그 매력적인 냄새는 여름에 더욱 진하게 풍겨난다. 나도 그랬었다. 뉴욕은 나를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고 달려든 뉴욕 생활이었다. 뉴욕은 엠파이어스테이트 아닌가. 그리고 뉴욕시는 그 심장이고, 그것은 침을 발라 짚을 해 놓고는 하 FEO까지 해 보자고 하는 짝사랑의 시도였다. 누구든 뉴욕을 사랑치 않는 이 없으니, 또한 그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뉴욕을 사랑했던지, 뉴욕이 내게 줄 사랑을 사랑했던지 간에 나의 뉴욕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항상 'ACTION'이 존재하는 곳. 행동파이기에 뉴욕은 멋지다. 표지 속의 그녀를 다시 본다. 그녀는 지금 막 뉴욕 사랑에 나선 것일까? 출발하기 전 고개를 돌려 짓고 있는 회심의 미소, 기대의 미소, 뉴욕을 포획해 보겠다는 자신감에 찬 미소는 매력적인 남성의 뒤를 쫓는 여성의 경쾌한 발걸음과 닮아 있다. 뉴욕의 힘찬 맥박소리를 따라다니다 보면, 그녀도 어느 새 그 박동소리에 길들여진 뉴요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여름을 기차여행에 비유한다면,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그 기차지는 레이버 데일리 것이다. 독립기념일 연휴는 그 여행중 첫번째로 당도하는 정거장일 터이고, 잠시 쉬는 동안 여름은 차 문을 열고, 사람들을 쏟아내어 강으로 바다로 안내한다. 맨살갓에 와 닿는 두 가지의 상반된 느낌, 작렬하는 태양이 주는 그것과 차가운 물살에 그 느낌을 식혀내며, 여름이란 이렇게 극과 극이 상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극과 극이 통할 때, 전류는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은 성장한다. 아, 여름은 성숙이다. 어느 새, 소녀티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선 동네 처녀의 그 매혹적인 모습처럼, 여름은 다시 크게 경적소리를 울리며 출발을 알린다. 기차 속에는 방금 물에서 빠져나온 싱그러운 얼굴들이 가득 차 있다. 기차는 달리기 시작한다. 여름의 한낮을 달리고 있다. 저기 창문 옆에는 동승한 뉴욕이 바깥경치를 즐기며 함께 가고 있다.

몇 해 전 일요일 아침이라고 기억된다. 우리 가족은 맨해튼에 위치한 교회를 가기 위해 이른아침 공기를 가르며,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 때, 저 앞 맨홀뚜껑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보였다. 여유롭게 피어오르는 그 연기 속에서 나는 피곤한 어젯밤을 보내고 이른아침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문 한 남자가 떠올라졌다. 그 남자는 바로 뉴욕이었다. 그 방만한 생활을 떠 받치고 사는 남자, 뉴욕이었다. 그는 이른 아침 '싸'하게 느껴지는 담배 한 개비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단정한 수트의 저고리를 벗어버리고, 넥타이마저 느슨하게 잡아당긴 채, 안락의자에 앉아서였을까? 아니면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어느 건물벽에 기대서서였을까? 뉴욕은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의 박신양의 모습처럼, 때로는 이동건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이중성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그 위세당당한 마천루와 저 남루한 지하철의 대비처럼. 하여튼, 그날 아침 작은 평화를 즐기던 뉴욕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독립기념일을 지나고 나면, 가끔은 하늘을 보게 된다. 불꽃놀이는 우리에게 일종의 환타지를 선사했었다. 그 때문일까? 마치 전날 무도회에 갔었던 재투성이 아가씨 신데렐라가 부엌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만지작거리듯, 나는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 본다. 그곳에는 불꽃놀이 대신 별이 있다. 내가 어릴적, 고향에서 보던 별이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라고 점찍어둔 바로 그 별일 것이다. 내 눈이 나빠져서인지, 공해 때문인지 별은 그 때 처럼 반짝이지 않지만, 별을 보는 순간, 그 빛은 내 눈을 타고 들어와 머릿 속 오래된 기억의 서랍을 열어 재깁는다. 그 속에서 나온 작고 시시한 물건들이 때론 나를 기쁘게 한다.

몽당연필, 오래된 수첩, 빛바랜 사진, 닳아빠진 낡은 지갑같은 것들이, 여름밤 서늘해지면 밖에 나와 하늘을 봐야겠다. 별하고 친해져야겠다. 별들이 들려주는 기나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봐야겠다. 별을 보고 잠드는 밤이 많아지면 어느덧 뉴욕도 나에겐 고향이 될 것 같다.



신혜진(영문 80)
뉴욕지회



이숙자(영문 47)
클리블랜드 지회

클리블랜드 지회에서 가장 고참 동문이신 이숙자 선생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선배님은 해방 후 1948년, 비행기도 연결되지 않은 시기에 15일 동안 배를 타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셔서 공부를 마친 후 평생을 미국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클리블랜드 지회의 자랑스런 선배님 이십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는 우리 후배들의 마음을 더없이 훈훈하게 해 줍니다. 다음은 많이 잊어 버리셔서 쓰지 않으시겠다는 선배님께 우리 후배들이 간청하여 써 주신 글입니다.

도미(渡美)

저는 1947년에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조교로 있다가 1948년에 미국 오하이오(Ohio)주에 있는 볼드윈 월레스 대학(Baldwin-Wallace College: BWC)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미국으로(from Korea to Berea) 도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영어실력이 너무나 부족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자신감은 당당했지요. 그때부터 거의 60년 후인 은퇴한 2004년까지 38년 동안 카야호가 커뮤니티 대학(Cuyahoga Community College Western campus: Tri-C West)에서 영어, 영미문학,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 때에는 Jet Age 이전(비행기 연결이 없었음)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인천을 떠나 15일간 태평양의 대파에 부딪치면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탄 후 처음 3일간은 혼수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재생한 기분으로 거대한 바다에서 뜨고 지는 태양을 보고 그 신기함에 감개무량했습니다.

6.25 (六二五)

1950년 볼드윈 월레스 대학(Baldwin-Wallace College: BWC)을 졸업하던 해 6.25전쟁이 일어나 꼼짝도 못하게 된 입장에 있을 때 다행히 웨스턴 리저브 대학(Western Reserve University) (지금의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어려운데 불어까지 하게 되어 무척 어려웠지만, 이화의 진선미를 추구한다는 그 정신으로 재미있는 학생생활을 지내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취직(Teaching)

우연히 카야호가 커뮤니티 대학(Cuyahoga Community College, West Campus)에 1965년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1963년에 창립된 Tri-C는 아직도 초기였기 때문에 건물도 거의 헐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다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이 날마다 흥분에 젖던 그 시대였습니다. 1975년에 현재 파마(Parma)에 있는 근대적 캠퍼스로 옮겼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친 것보다 제가 학생들한테 배운 것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년(Sabbatical)

1980년에 Tri-C로부터 안식년(sabbatical)을 받고 모교에 가서 한 학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 80명과 같이 로런스(D.H. Lawrence)의 "Rainbow"라는 소설을 공부하고 있던 도중 광주사태가 일어나 학교가 폐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기동창 극작가인 강성희교수가 "이 세상만큼 큰 자유"라는 국본을 써서 연출하게 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그 연극을 보고 난 후의 감상과 평론을 영어로 쓰라고 했었지요. 한 학생도 빠짐없이 80명 전원이 다 써서 제출했는데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 편이 나도 놀랐고 기뻐했습니다. 그 연극은 이후 제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시간의 착각(錯覺)

그렇게 즐거웠던 한 학기를 마치고 또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 윤연도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었지요. 옛날 옛날에 비가 쏟아지거나 눈이 쌓이거나 할 때노래를 부르고 지껄이면서 소학교에 다니던 날이 었그제 같이 기억에 생생한데 Tri-C에서 가르친 1965년부터 2004년 사이의 기간은 아주 옛날 같이 느껴지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손녀, 손자에 몰두하고 있으며 행복 중에 최대한 것으로 여기면서 만년학생으로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 엘리엇(Elliott)은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West Virginia University)에서 석탄(Alternative Fuel)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딸 낸시(Nancy)는 작가 및 화가(Writer-Artist)로 시애틀(Seattle)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충만한 생활하시도록 기원합니다.

Ewha 2007

동창여러분을 뉴욕에 초대합니다.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이며 문화와 예술의 축을 이루고 있는 뉴욕에서는 요즈음, Ewha 2007 에 여러 동문을 맞이 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국의 각지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던 이화인들이 잠시 일상을 접고 여기에 함께 모여, 모교에서 뛰놀던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 함께 기뻐하고, 선 후배 동창들간에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뉴욕은 도시 자체의 다채로운 색깔로 동문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도 하겠으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역시 놓치기 아까운 내용입니다.

먼저, 그 어떤 자리에서도 돋보이는 Speech를 해주시는 총장님의 명강연입니다. 이 화인으로 살아가면서 자녀야 할 덕목들을 자연스럽게 섭취시켜 주시는 총장님의 강연시간은 뉴욕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Workshop I 에서는 미국에 있는 한인중 가장 영향력있는 자리에 오른, 전 신에 미연 방노동부차관보의 "Success in tomorrow's workplace"강연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직접 강연을 들으신 후,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Workshop II 에서는 New York Botanical Garden 의 Head of Flower Department로 재직하고 있는 이 원영동문의 "Elegant New York Style Flower Arrangement and Ribbon Design" 강연이 있습니다. 꽃과 리본을 가지고 직접 조화로운 꽃꽂이의 첨단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행사 틈틈이, 그리고 토요일 만찬 순서에서, 동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풀어 주실 김 숙자 체육학과 명예교수의 "마미모미 다함께"에서는 온몸이 즐거움을 느끼는 사치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뉴욕의 또다른 상징, Broadway Show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 여러 뮤지컬중, 가장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는 세편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틴이라는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오페라의 유령이야기로, Musical의 본고장에서만 맛 볼수 있는 진수 "The Phantom of Opera", 우리에게 친숙한 "오즈의 마법사"중, 오즈라는 세계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의 과거시절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만든 뮤지컬 "Wicked", 유명 그룹 ABBA 의 히트곡이 스토리 사이 사이 계속 이어지는 "Mamma Mia!"중 한편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의 여신상, 소호거리, Wall Street 등 Downtown과 Empire State Building 등 Midtown의 마천루, 세계 3대 뮤지엄중 하나인 Metropolitan Museum을 포함한 뉴욕관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wha 2007, "Women for the World"가 더 보람되고 뜻깊은 만남의 장이 되도록 여러 이화식구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1월! 뉴욕에서 뵈겠습니다.

뉴욕지회 동창 일동

Program

Thursday, November 8

3:00pm - Registration
9:30pm 지회장 회의

Friday, November 9

7:00am Exercise
7:30am Breakfast
8:00am 연합회 이사회
9:30am 연합회 총회
12:30pm 총장 오찬 및 강연
3:00pm Workshop I (전신애 동문)
4:00pm Workshop II (이원영 동문)
5:30pm Dinner
8:00pm Broadway Show 관람
11:00pm Manhattan 야경 Drive
12:00am 천교

Saturday, November 10

7:00am Exercise
7:30am Breakfast
9:00am Manhattan 시내 관광
6:30pm Annual Banquet

Sunday, November 11

8:00am Breakfast
9:30am 예배, 총장 간담회 / 임원교체

* 프로그램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안내

Hilton Fort Lee George Washington Bridg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Tel: (800)445-8667, (201) 461-9000

Room Rate: \$139
Code for Group: Ewha 2007

★ 10월 15일까지 예약해 주십시오.

공항안내

- ★ 뉴욕공항에서 16 마일 (20분) \$50
- ★ 라파디아공항에서 13마일 (30분) \$70
- ★ 케네디공항에서 22마일 (45분) \$90

통행료 및 세금, 팁이 포함됨.
가능하면 뉴욕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콜택시: 201-224-6000

제 4회 Ewha Alumnae Academy 개최

총동창회(회장 김순영)와 대외협력처(처장 이명선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해외 거주 동문 교육프로그램 Ewha Alumnae Academy가 2007년 5월 29일(화)~6월 1일(금)까지 4일간 진행됐다. 올해 제 4회째인 EAA는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이여령 명예석좌교수, 진덕규 이화학술원장, 함인희 경력개발센터 원장의 특강과 캠퍼스 투어, 창덕궁 견학, 이사장 초청 오찬, 총장 초청 오찬, 총동창회장 초청 만찬, 대외협력처장 초청 만찬, 그리고 창립 121주년 동창행사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EAA는 미주지회 동문 뿐 아니라 독일지회, 싱가포르지회 및 국내지회 동문들도 참여했다. 총 22명의 동문들은 알차고 뜻 깊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하며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리고 수료식에서 학교발전에 써달라며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뉴욕 지회

회장: 최성남(약학 70)

- 1월 27일 > 1000 여명의 이화인이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뉴욕동창회에서는 격월간으로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데, 최성남 회장집에서 5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신년하례를 겸한 home concert를 마련했습니다. 대선배와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후배까지 모두 모여 정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3월 18일 > 40여년이 넘게 동창회를 위해 땀흘려주신 역대 회장단 및 이 사님을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NY Botanical Garden 에서 이 원영동문(미술 68)의 설명이 곁들여진 화사한 난죽제는 최 성남 회장이 마련한 Lunch 와 더불어 더욱 풍성해진 시간이었습니다.
- 5월 8일 > Manhattan 이 영화 한복 박물관에서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11월에 열릴 북미주총회에 관한 프로그램의 조율과 결정사항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두가지 장학금 수여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7월 19일 > Manhattan Phoenix Gallery에서 녹미회 전시회 Reception이 있었습니다. 미대출신 작가들이 해마다 자신들의 작품을 준비해서 여는 이 전시회에는 올해도 많은 새로운 작품들이 선보여 미대동창들의 열정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5월 29일 - 6월 1일 > 본교 총동창회와 대외협력처가 공동주최하는 해외거주 동문 교육프로그램(Ewha Alumnae Academy)이 모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뉴욕동창회에서는 이보영(음악 55), 박순자(교육 63), 최성남(약학 70), 이정화(영문 70), 김기령(영문 81), 박영숙(경영 86) 등 6명이 참석하여, 다채롭고 유익한 여러 강연과 행사속에, 무르익은 모교의 5월을 호흡하고 돌아왔습니다.
- 뉴욕동창 장학회(이보영 위원장)에서는 2007년 장학금으로 한인학생에게 수여하는 지역 장학금 3,000불과 이화대학 졸업생으로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임길재 장학금 2,000불을 지급하였습니다.



로스엔젤레스 지회

회장: 김수경 (음악 75)

- 4월 28일 > 이화여대 국제재단을 돕는 기금 모금 만찬행사가 Garden Suite Hotel 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방미하신 이 배움 총장님과 동창과의 간담회자리도 마련되어, 많은 동창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5월 19일 > Wilshire Ebell Theatre 에서 정 효정 단장(68 영문)을 비롯한 48명의 합창단원이 멋있는 남가주 이화인 5월의 밤 합창제를 마련했습니다. 동창들의 조화로운 합창이 아주 인상적인 밤이었으며, 이화 출신의 전문성악가 교수로 구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벨라보체(Bella Voce)가 특별출연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감동으로 전해주시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양승희(사회 73)

- 3월 3일(토) > 정기총회를 열고 동창회에서는 처음으로 북가주 동창자녀 3명에게 \$1,000.00 씩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회칙개정도 하였다.
- 5월 10일(목)-22일(화) > 33명의 동창들과 이화사위가 러시아와 동유럽여행을 하였다. 선후배간의 사랑과 친목도모를 위한 좋은 여행이었다.
- 8월 4일(토) > Ortega Park에서 동창회 피크닉 겸 '파주 캠퍼스 기금모금' 바자회를 하였다. 많은 동창들이 가족동반하여 참석하여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모금된 수익금은 11월 뉴욕 총회 때 총장님께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세인트 루이스 지회

회장: 김혜영(간호 79)

- 2006년 12월 > 8명의 동문들이 정기모임을 겸한 크리스마스와 송년파티로 모였습니다. 바쁜 관계로 많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웃어 봅시다"를 준비해 오셔서 많이 웃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 4월 22일 정기모임 > 13명의 동문들이 모였으며, 이 모임에서는 최경선 동창(영문 61)께서 "새 봄맞이 아름다운 집단장"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연순 동창(영문 60)아드님이 이라크에 파병되었으므로 격려차원에서 care package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 2007년 10월 > St. Louis지회 10년째를 맞이하는데 그중 7년 반을 회장으로 열성적으로 수고하시던 정선주 동창(성약 68)후임으로 새회장에 김혜영(간호 79), 서기 조숙자(중문 95), 회계 이승원(유아교육 06)으로 새 회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시라쿠스 지회

회장: 황병남(65 사사)

- 지난 5월에 처음으로 동문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문은 20여명이며 57년 졸업생부터 95년 졸업생까지 있으며 임원은 황병남 (65 사사), 이정희 (65 음대), 이영빈(66 법과), 경순표(72 의대)입니다.

아틀란타 지회

회장: 김복희 (의류직문 75)

- 12월 10일 > 동창회 송년모임을 장 명옥 동문댁에서 45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원옥회장의 11월 토론토 북미주연합회 총회에 관한 간단한 보고를 시작으로 새임원진이 소개되었고, 간단한 선물증정과 그룹별 노래대항, 퀴즈게임, 가라오케까지 시간가는줄 모르게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앞치마와 동창들이 준비한 Salon Shampoo와 달력을 참석한 모든 동창들께 나누어주었습니다. 2007~8년도에는 김복희(75 섬유예술)동문이 회장직을 맡아 동창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지회

회장: 김영례(교심 79)

- 11월 10~12일 >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제5차 총회에 총9명의 동문들이 참석했습니다. 연합회를 주최한 경험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했으며, 지회 동문들 간에 더욱 정이 두터워지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임 이배용 총장님께 ECC 장학금으로 모금한 \$45,000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11월 18일 > 웨이커 하이츠에 위치한 캔터베리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연례만찬을 가졌습니다. 볼드윈 웰레스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본교 재학생 3명을 포함, 55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만찬 및 즐거운 오락과 댄스를 즐겼습니다.
- 12월 2일 > 비치우드에서 슈헤이에서 월레모임 및 총회를 가졌습니다. 김영례 회장이 2007년도 회장으로 연임되었고, 2006년도 지역사회 돕기 운동과 관련된 기부금 보고 및 연말 회계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회 소식을 담은 2006년 마지막 뉴스레터도 배부하였습니다.
- 1월 27일 > 김진경(의학 81) 동문 집에서 신년 첫 월레모임으로 19명의 동문들이 모여 신입회원 환영 및 김경희 동문을 위한 묵념을 하고, 식사 후 윗놀이 및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 2월 28일 > 요리연구가 이미영(영문 91) 동문 집에서 요리방법을 배우며 즐기는 월레모임을 가졌다. 동문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요리들 중 두 가지를 골라 그 레시피를 뉴스레터에 신기도 했습니다.
- 3월 28일 > 이화여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볼드윈 웰레스 대학 담당교수 및 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정심(수학 83) 동문의 주선으로 교내식당에서 월레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 교환학생들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에 속한 재학생들과 함께 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 4월 28일 > 비치우드의 슈헤이에서 월레모임을 가졌다. 2007년 뉴욕에서 개최될 북미주 지회 연합회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회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배부하였습니다.

휴스턴 지회

회장: 문희채(영문 72)

- 12월 10일 > 장학기금모금을 위한 박 지연(성악 95)독창회를 전 홍유리 회장의 주관하에 300 여명의 동창과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 1월 17일 > 2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Salad luncheon을 나누며, 문 영자 선교사의 감동적인 선교 보고를 듣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 2월 22일 > 노인들을 위한 구정맞이 떡국 잔치를 한인 노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여러 동창들이 성의껏 준비한 떡국과 한과, 과일등과 함께 포장한 선물로 외로운 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 5월 19일 > 연례총회를 갖고, 신규 임원교체 및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한인학생 두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칭찬, 격려하였으며, 앞으로의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의논하였습니다.

80년 이화사랑 외길



임길재 박사(영문 33)

임길재 박사(1911년생)는 일찌기 1933년에 이화전문학교의 문과를 졸업하시고 1935년에 일본 동경제국여자학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이화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사가 되었다. 1941년 졸업 후 경성제국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상 수련과 연구를 마치고 1945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광복 후에는 4년간 이화대학 부속 동대문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으로 수고하셨고 1949년에 도미하셔서 미국의 Michigan 대학, Johns Hopkins 대학 등 여러 의과대학병원에서 10년간 공부와 수련을 더하셨다. 임박사는 1960년에 뉴욕주에서 동양의 외국의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의사자격 면허를 획득한 개척자이시다. 그 후 뉴욕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업의(산부인과)가 되셔서 1960년부터 1989년 까지 인술을 베푸시는 동안 미국 여자의사회의 대표로도 활약하셨다.

임길재 박사는 미국에 사시면서 모교의 발전에 몰심양면으로 많이 기여하셨다. 1966년부터 1969년 까지는 당시 김할란 박사님이 주도하셨던 '이화10년발전계획' 뉴욕 책임자로 수고하시면서 1967년에서 1969년 까지는 주로 미국인들의 이화대학 후원단체인 Ewha Cooperating Board in North America의 이사로, 1970년부터는 이화대학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Inc.)의 창립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1981년- 2003년까지 국제재단의 부이사장직을 맡아 수고하셨다. 또한 1964년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화대학동창회를 창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초대 뉴욕지구이화대학동창회장으로 3년 동안 수고하셨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창회의 고문으로 계시면서 많은 후배들에게 이화정신과 모교사랑의 귀감이 되고 계시다.

임길재 박사는 1976년에 이화대학 9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고 1997년에는 모교에서 자랑스러운이화인 상을 수상하셨다.

장혜원 박사(약학 55) 기고

북미주 지회 연합회 38지회 및 지회장

AL	Anchorage	김명순	사학 81	HI	Hawaii	김명희	약학 79	NY	Buffalo	김기연	작곡 70
AZ	Phoenix	김은미	교육 85	IL	Chicago	현정순	의학 69	NY	New York	최성남	약학 70
CA	San Diego	송요령	수학 74	KS	Kansas	안순태	법학 90	OH	Cleveland	김영래	교심 79
CA	S. California	김수경	작곡 75	MA	Boston	이문희	작곡 77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59
CA	San Francisco	양승희	사회 73	MA	Rhode Island	이길자	의학 66	OR	Portland	한상화	기악 70
Canada	Edmonton	이혜경	사생 67	MD	Baltimore	최영선	가정 77	PA	Allentown	강혜란	화학 72
Canada	Vancouver	김아자	영문 63	MI	Ann Arbor	오미령	식영 77	PA	Northeastern	박현정	약학 80
Canada	Toronto	조화정	불문 77	MI	Detroit	이영숙	약학 70	PA	Philadelphia	양경자	성악 65
Canada	Montreal	전숙자	사생 65	MI	E. Lansing	조미영	동양 85	TN	Nashville	김인경	영문 76
CO	Denver	이미옥	국문 68	MN	Minesota	황성숙	국문 68	TX	Houston	문희채	영문 72
DC	Washington	이정렬	사생 61	MO	St. Louis	김혜영	간호 79	TX	Dallas Fort Worth	이정화	무용 76
FL	Orlando	서광순	영문 61	NJ/PA	Delaware	김영	영문 69	WA	Seattle	이정형	약학 63
GA	Atlanta	김복희	의류직물 75	NV	Las Vegas	박혜경	화학 8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9 Robbins Lane, Great Neck, NY 11020 ▪ Tel. 516-466-0399, 646-526-5600
 Email: ewhaalumny@gmail.com / www.ewhain-na.com

임원

회 장 : 최성남(약학 70)
 제 일 부 회 장 : 이정형(약학 63)
 제 이 부 회 장 : 이미옥(국문 68)
 뉴욕지회이사장 : 조 연(약학 61)
 뉴욕지회부회장 : 이정화(영문 70)
 총 무 : 김기령(영문 81)
 회 계 : 모명숙(수학 85)
 정은숙(사회사업 95)
 서 기 : 양원정(불문 89)
 한국희(법학 80)
 이민정(유아교육 91)
 출 판 : 박영숙(경영 86)
 디 자 인 : 김혜경(조소 93)

Registration Form 참가신청서

Name	한글		
	English		
출업년도	출업학과	동창회지명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Phone	Home	Cell	
	Work	Fax	
E-mail			

Date	참가회비 내역	비 용
Friday Nov. 9	Registration Fee	\$ 25
	Breakfast	뉴욕지회 제공
	Luncheon with President	\$50/person \$
	Dinner Box (도시락)	뉴욕지회 제공
	Broad-way Show	Wicked \$99/person \$ The Phantom of the Opera \$72/person \$ Mamamia \$72/person \$
Saturday Nov. 10	Breakfast	뉴욕지회 제공
	Manhattan City Tour (Admission & Lunch Included)	\$70/person \$
	Grand Banquet	\$130/person \$
Sunday Nov. 11	Breakfast	총동창회 제공
Total		\$